

공동체 소식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하느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에게 월계관을 씌워 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7월 기도지향

- 정연숙 막달레나 가정
- 정한조, 정지현 막달레나 가정

영명축일

- 일시 : 7/5(일) 중심미사

주임신부님의 영명축일(사도 토마스)을 함께 기뻐합니다. 아울러 서품 1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주님께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착한 목자'로 살아가시길 기도드립니다.

평화신문 홍보

- 일시 : 7/19(일) 중심미사

- 담당 : 김영춘 베드로 신부님(평화신문 사장)

☞ 평화방송, 평화신문 후원회 가입은 선교의 시작입니다!

주일학교 물놀이

- 일시 : 7/18(토) 오전 10시부터

- 장소 : Schlitterbahn Kansas City Waterpark

- 회비 : 본당지원

\* 간식은 교육부장님과 상의하여 자모회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피정을 준비해 주신 전례부와 평협에 감사드리며, 피정에 참여해 주신 형제자매님들께도 성령의 크신 은총 기도드립니다.

- 이번 주, 화요일과 목요일 평일미사는 없습니다.

- 올해도 캔사스시티 한인회 주최, 광복절기념 소프트볼 대회(8/15, 토)가 열립니다. 작년의 우승에 힘입어 올해도 열심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이우영 가브리엘

☎ 301-395-5868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285	213	160/298	286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항 복사
금주	고평원 프란치스코	정병훈 보니파시오
	차민서 임마누엘	정예찬 미카엘
차주	이원준 요한	차호섭 요셉
	차민서 임마누엘	김준영 요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명은 안젤라	홍순의 마르티노
		최은미 아네스
차주	최은미 아네스	김정서 사비나
		김아람 크리스티나

애찬 봉사자

금주	다 함께
차주	박혜정, 정연숙, 장남순

헌금 봉사자

금주	정수한 베드로, 김대성 요한
차주	백문주 엘리사벳, 고영방 스테파노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투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6/28	75명	371불	830불
김호원, 김인자, 김태중(총 3세대)			

☞ 감사헌금 : 정연숙 (100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

“보이는 것은 잠시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르코린 4,18-

2015년 7월5일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 캔사스 한인 천주교회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 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박동희 안나 660.853.9984 flyanna@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의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 오늘의 전례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사제로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 꽃다운 나이에 피를 흘리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뜨겁게 불타오르기를 하느님께 전구하고 계십니다. 순교자들의 피를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 그림 묵상

#### 한국교회의 초석 김대건 신부님

김대건 신부님께서 15세의 나이에 세례를 받고, 상해에서 사제품을 받으시고 작은 목선 하나로 망망대해를 건너셨습니다. 짧은 사제 활동을 하다 26세의 나이에 새 남태에서 순교하십니다. 관리들은 40차례의 문초 끝에, 두 귀에 화살을 꿰고 얼굴에 물을 뿌리고 회를 발랐습니다. 여덟 번째 칼날에 목이 떨어질 때까지 죽음에 맞서신 기백은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여지없이 보여주십니다. 아!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신 김대건 신부님! 조국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달아오르도록 저희를 이끄소서!

정미연 소화대레사

제 1 독서 : 역대기 하권의 말씀입니다. 24,18-22

< 너희는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즈카르야를 살해하였다(마태 23,35 참조). >

화 답 송 :



제 영 혼 을 당 신 의 손 에 맡 기 나 이 다.

제 영 혼 을 당 신 의 손 에 맡 기 나 이 다.

○ 제 몸을 막아 주는 큰 바위 저를 살리는 굳은 성채 되소서.  
저의 바위 저의 성채는 당신이시니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이끌어 데려가 주소서. ◎

○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맡기오니 당신께서는 저를 구해 주시리이다.  
저는 주님만 믿삽나이이다. 자비하심에 기뻐 즐거워 하나이다. ◎

○ 당신의 종 위에 당신의 얼굴을 빛내어 주시고 자비로우심으로 저를 살려주소서.  
당신 얼굴 그느르심으로 사람들 음모에서 그들을 구해 주소서.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5,1-5

<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행복하야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17-22

<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세마

### “하느님께 사로잡힌 사람”



‘너희는 나 때문에 끌려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마태 10,18.22 참조)

오늘 복음은 예수님 제자들의 운명을 암시해줍니다.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 그리고 죽음까지도 각오하고서 주님을 증언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만, 제자들이 그 길을 혼자서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도와주신다고 하십니다. 제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증언활동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일 뿐입니다. 만일 제자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박해도 없을 것입니다. 진실한 증언은 말로써만 되는 것이 아니니, 당연히 자기가 말한 그대로의 삶, 즉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박해와 환난이 가로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의 삶을 살고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미사의 말씀들에서 힌트를 발견합니다. 제1독서의 즈카르야처럼, 제자가 ‘하느님께 사로잡혀’(역대 24,20 참조)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께 사로 잡혀 있는 한 어떠한 환난을 당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분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1821~1846) 사제 순교자 대축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9월 20일에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한국의 103위 순교 성인 전체를 전 세계 교회와 함께 기리는 날인 데 비해, 오늘은 김대건 신부님을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로 기리는 한국교회만의 고유축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대로 김대건 신부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어 문초를 당하면서도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견디어 내셨습니다. 순교로써 주님을 증거하신 성인께서도 말하자면 ‘하느님께 사로잡힌 분’이셨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모범을 따라서 많은 사제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2014년 말 현재 한국인 사제 수 4,786명) 이제는 주님의 제자라고 해서 누가 끌어가거나 채찍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환대 받고 사랑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시대나 성인의 순교 당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주님을 증거해야 한다는 제자의 사명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님께 사로잡히는 일’도 여전히 절실합니다. 사제 한 분이 교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큼니다. 한국교회와 후배 사제들을 위한 김대건 신부님의 전구가 절실합니다. 한편, 예수님을 증거 할 사명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신자의 몫이기도 합니다. ‘주님께만 사로잡혀 사는지 어떤지’를 따져보는 일은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해안과 소박한 삶의 열매를 전구해주시기를 성인께 청합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 서울대교구 유경춘 주교 -



주춧돌

### 제 3 편 자기 성화

#### 제 1장 주님을 섬기는 가정



만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거슬리면,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 아모리족의 신들이든,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안은 주님을 섬기겠다(여호 24, 15).

#### 【주석】

**거슬리면** : “...너희 눈들에 나쁘면”이라고 직역할 수 있다(주석 성경, 579).

**아모리족** : 아모리족은 이스라엘인들이 정착하기 전에 가나안에 살았던 민족들을 대표한다(주석 성경, 580).

**선택하여라** : 여호수아는 (아마도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던) 씨족들에게, 하느님과 계약을 맺은 지파들과의 통합 여부를 결정짓는 근본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선택하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여기에서는 하느님의 선택에 이제 인간의 선택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상동).

#### 【설명】

우리 집안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여호수아와 그 집안은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섬기겠다고 선언한다. 예로부터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정이 바로 서야 한다. 가정이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의 미래도 밝다. 오늘날 가정이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문제 등으로 해체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가정을 바로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정은 작은 교회이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가장 잘 드러내는 공동체다. 이러한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가정에 하느님을 첫 자리에 모셔야 한다.

▶ 야곱은 가족들과 자기에게 딸린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너희에게 있는 낫선 신들을 내버려라. 몸을 깨끗이 씻고 옷을 갈아입어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곳에 제단을 만들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내가 어디를 가든 나와 함께 계셔 주신 하느님께 바치고자 한다”(창세 35,2-3).

#### 【교회의 가르침】

▶ 그리스도인 가정의 열매는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전례와 자기 봉헌과 기도로써 보강된 삶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정공동체 62항).

#### 【어록】

▶ 돈은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것을 잘 쓰라. 그대가 더 많은 돈을 수중에 넣게 되거든 하느님의 영광을 들어 높이는 일들을 늘려가라. 천사가 베드로에게 “신발을 신어라.”고 명령하였다. 천사가 신발에까지 관심을 두고 있던 것이다! 그대의 의복, 집, 가구, 서적, 작업도구 등 모든 것을 보살피라. 창조된 사물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알고 사랑하고 적절하게 섬기는 데 도움이 된다. 사물들, 우리의 자연계, 우리의 이성을 범하지 말라. 만물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상을 위하여, 우리의 목표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로 활용하라(복자 알베리 오네 신부).

- 「신앙생활 보감」, 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 2013 -